

삼성SDI, EPS 포장재 줄여 원가절감

소형화와 경량화로 포장비용 49억원 절감 ... 환경효과로 경쟁력 높여

삼성SDI가 스티로폼(EPS/Expanded Poly Styrene) 포장재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하고 원가절감과 친환경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.

삼성SDI는 브라운관용 스티로폼 포장재의 재설계를 통해 한해 49억원 가량의 원가를 절감하게 됐다고 11월 16일 밝혔다.

스티로폼 포장재는 육로 및 해상 운송시 발생하는 충격에서 브라운관 제품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적정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중량과 밀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.

브라운관, PDP, LCD, 2차전지 등 첨단 디스플레이를 TV나 휴대폰 세트 제조기업에 공급하다 보니 전체 물류 절차 가운데 포장비 비중이 39%를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포장재 절감이 최우선 과제였다.

삼성SDI는 2003년 재료·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포장재 설계만을 연구하는 전문가 5명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태스크포스팀도 설치해 계속 운영하고 있다.

25인치 TV용 브라운관 8개를 포장할 수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두께를 기존 190mm에서 132mm로 31%, 면적은 1320mm×1120mm에서 1235mm×세로 1055mm로 11% 줄였으며, 포장된 제품을 컨테이너에 적재시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목재 파렛트 포장재의 면적도 13% 감축했다.

이에 따라 40피트 규모의 컨테이너 1개에 실을 수 있는 25인치 브라운관 수가 576개에서 640개로 11.1% 증가하게 됐다.

삼성SDI는 7-34인치 브라운관 전체에 포장재 경량화를 적용해 적재량을 평균 10% 정도 높이게 됐으며 2004년 총 49억원의 포장재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500년 이상 썩지 않는 스티로폼 소재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친환경적 소득도 짝짤하다.

삼성SDI는 물류혁신 활동을 국내 뿐만 아니라 7개국, 13개 생산 네트워크에 확산시킬 계획이며, PDP, LCD, OLED, 2차전지 등 다른 제품으로도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했다.

또한 선진형 물류 프로세스인 e-로지스틱 포털(Logistic Portal/LP) 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물류 체계를 구현하는 등 원가혁신을 위한 최첨단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1/17>